

홀란, 2경기 연속 해트트릭...개막 5경기 9골 신기록

등록 2022.09.01 10:14:17

노팅엄 상대로 전반 38분 만에 해트트릭 완성...득점 선두



[맨체스터=AP/뉴시스]맨체스터 시티 엘링 홀란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괴물'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이 데뷔 시즌부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를 폭격하고 있다. 2경기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EPL 개막 5경기 만에 9골 고지를 밟았다. 역대 기록이다.

홀란은 1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2022~2023시즌 EPL 5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맨체스터 시티의 6-0 대승을 이끌었다.

일찌감치 전반에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전반 12분 필 포든의 크로스를 왼발 선제골로 연결한 홀란은 23분 오른발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38분 존 스톤스가 머리로 건넨 패스를 헤더로 연결해 해트트릭을 만들었다. 전반에 왼발, 오른발, 머리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골을 선사했다.

이로써 홀란은 지난달 27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4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으로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개막 5경기 만에 9골을 기록, 득점부문 선두를 질주했다. 초반 5경기 만에 9골을 기록한 건 역대 처음이다.

종전 세르히오 아게로와 미키 쿨이 개막 5경기에서 8골을 터뜨린 게 최고 기록이었다.

세계 최고 무대로 불리는 EPL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며 최고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홀란은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도르트문트(독일)를 거쳐 이번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다.

4승1무(승점 13)가 된 맨시티는 아스널(5승 승점 15)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아스널은 아스톤 빌라에 2-1로 승리, 개막 5연승을 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